

## [ 성경과 애굽 ]

- 관련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등.

### 1.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

-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고대 근동의 중심지.
- B.C.20세기경부터(즉, 4000년 전에) 이미 농업을 선도함.
- 피라미드, 스피нк스, 카르낙 신전, 오벨리스크 등의 어마어마한 건축물.
-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 (by 헤로도토스)

### 2. 민족,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제국

1) **민족** : 남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문화적 공통사항을 지표로 상호간에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렇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 특히 '민족'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된 범주.

※ 성경의 민족 언급 : 성경은 창세기부터 '민족'을 말함.

- 아브라함(한 사람을 두고)에게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는 약속 주심(창12:2).
-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나라와 민족 언급 (창25:23- 야곱:이스라엘 민족, 에서:에돔족)
-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출19:5- 나라와 민족, 온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대전제)
-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마28:19-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적, 가정적은 물론 한 민족적, 모든 민족적임)

2) **민족주의** : 민족의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그 운동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민족주의- 민족주의의 강도가 과해지면 부정적인 면이 드러남)

※ 성경에서 나오는 민족주의의 예 : 창43:32 - 애굽 총리 요셉이 가나안에서 온 형들과 식사하는 장면에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애굽 민족의 민족 우월성을 드러낸 일종의 우월 민족주의.

3) **제국주의(Imperialism)** :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

4) **제국**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지배하는 형태. 주로 경제와 국방 문제를 축으로 주변 나라들을 흔들.

### 3. 제국과 제사장 나라

1) **제사장 나라** :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은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심(창12:2~3). ☞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후 500년 후, 모세를 통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을 주심(출19:5~6).

## 2)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둘 다 '민족'을 그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
- 차이점: 제국은 민족을 계급화 하는 반면, 제사장 나라는 민족 대 민족을 동등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함.
- 제국과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근간이 모세 때 '레위기'를 통해서 명료하게 정리됨(레26:3,8,10).
  - ☞ 제사장 나라 경영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심. 이에 예언자들은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국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라고 강력하게 주장함.
  - ☞ 다윗,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음: 130만명의 장정(삼하24:9)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나라의 경계(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왕상8:65),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넘지 않음.
  - ☞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기뻐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임.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함.

## 4. 성경에 등장하는 애굽

### 1) 애굽 총리가 된 요셉

-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감. 애굽에서 종 생활, 총무 생활, 억울한 죄수 신분을 거쳐 형들과 헤어진 지 22년만에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라 다시 형들과 재회함.
- 요셉의 바로의 꿈 해석.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대안 제시(창41:33~36). 애굽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로 애굽이 고대 근동에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계기(창47:13~14, 20).
- 목축업을 하며 민족을 이루는 요셉의 가족들(창46:34): 요셉의 총리 9년차, 아버지와 가족이 애굽에 내려옴. 당시 애굽 상황은 2년의 흉년 경험. 애굽에서 요셉의 목축업 선택은 70명의 가족을 입(入) 애굽 시킴으로써, 민족을 이룬 후 출(出)애굽까지 책임지겠다는 결단으로 볼 수 있음.
- 요셉의 유연(창50:25, 출13:19, 수24:32): 요셉의 해골은 400여 년이 지난 후, 출애굽 때에 파서 들고 나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세겜에 장사됨.
-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의 출현. 출애굽의 때가 왔다는 신호로 이어짐.

### 2) 애굽 왕자 모세와 애굽

-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의 출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국 내의 히브리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애굽(출1:10). 히브리인을 건축 현장으로 내몰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여 학대를 시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인구가 줄지 않고 더 늘어남.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림(출1:1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출1:17). 그러자 직접적으로 남자 아이들을 나일 강에 던져 죽임(출1:22).
- 모세의 탄생(출2:1~3)과 출애굽 사건 : 애굽 거주 430년 만에 모세를 지도자로 한 출애굽 시작. 출발지는 국고성 라암셋. 출애굽 인원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도 60만 명(출12:37, 40).

### 3) 제국 애굽의 추락 : 홍해사건

-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로 길을 잡은 모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출13:17~18).
- 홍해 사건(출14:8~9, 13~14, 15~16): 도망하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모두 수장시키심(출14:26~30). 애굽의 모든 병거에 애굽의 장관들이 직접 탑승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모두 홍해에 수장

## [ 성경과 앗수르 제국 ]

- 관련 성경: 요나, 나훬, 이사야, 아모스, 열왕기하, 역대하 등.

## 1. 앗수르

- 520년간 상(上)아시아를 지배한 앗수르.
  - >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애굽,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아라비아 펠릭스까지 3200km에 걸친 소아시아와 초원과 사막을 장악하고 다스림.
- but, 19세기까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앗수르의 유적.
  - >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에 의해 **발굴된 앗수르 수도 니느웨(니네베)**는 발굴 전까지는 땅 속에 묻힌 존재였음.
  - >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는 그 성 위로 물이 범람해서 토사가 구름 위로 20피트(약 6m)나 쌓여 있었다고 함.
  - > 앗수르 멸망 200년 이후, 크세노폰이 1만 명의 그리스 병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을 위해 지날 때도 발 아래 니느웨가 있는지 몰랐다고 함.
- 앗수르 제국의 멸망 : B.C.609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

## 2.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 한 민족 두 국가 시대

북이스라엘	200년 만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B.C.722년). 200년 동안 7번의 쿠데타, 19명의 왕들
왕(19명)	여로보암1세,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b>아합</b> ,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 (왕하13:1~2, 10~11, 14:23~24)
남유다	350년간 다윗의 혈통으로 20명의 왕들
왕(20명)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웃시야), 요담, <b>아하스</b> ,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 <참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 역사

40년 광야 생활 → 5년간 정복 전쟁하며 가나안 땅 차지 → 300년간 사사 시대(사무엘로 마감) → 120년 통일왕국시대: 사울(40년)/다윗(40년)/솔로몬(40년) → 한 민족 두 국가 시대: 북이스라엘(200년), 남유다(350년) → 70년 바벨론 포로생활

### 3. 앓수르와 북이스라엘

#### 1) 요나 선지자와 앓수르 (B.C.8세기)

- 시대적 배경: 북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져 악한 죄 가운데 있고, 앓수르는 제국주의를 펼치고 있던 상황.
-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적국 앓수르로 가서 수도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하여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전하라.” (욘1:2)
-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 계획을 전하는 요나 (욘3:4)
-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굶은 배 옷을 입고 회개하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 (욘3:5~9)
-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욘3:10, 4:11)
- 제국주의의 야망을 저버리지 못한 앓수르
  - > 150년 후, 나훔 선지자(B.C.7세기 활동)에 의해 ‘앓수르 멸망’ 선포를 듣게 됨.
  - > “니느웨가 범람하는 물로 진멸될 것. 니느웨를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 (나1:8)
  - > B.C.609년~A.D.1846년까지, 2450년 이상 땅 속에 묻힌 존재가 된 니느웨.

#### 2) 북이스라엘 왕들과 앓수르

6번째 오므리 왕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음 (왕상16:23~26)
7번째 아합 왕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짓고(왕상16:29~33), 선지자 엘리야와 각을 세우고 죽이려고 함. ->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
13번째 여로보암 2세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16번째 므나헴 왕	제국주의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앓수르 왕 ‘불’(역사 속 이름: B.C.745년의 잔혹한 티글랏-빌레셀3세)의 침략. 앓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은 천 달란트를 바치는 므나헴 (왕하15:19~20)
18번째 베가 왕	북이스라엘 백성을 앓수르로 잡아가기 시작하는 앓수르 왕 (왕하15:29) 앓수르와 맞서기 위해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 동맹을 제안함. 남유다 아하스 왕의 거절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남유다에 쳐들어오려고 함. 이에 남유다 아하스가 앓수르에 도움을 청함. (왕하16:7~9)
19번째 호세아 왕	앓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공격해옴. 호세아 왕이 앓수르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하던 것을 멈추고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요청함. 호세아 왕의 배반에 앓수르 왕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간 에워싸고 호세아 9년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앓수르로 끌어감 (왕하17:3~6)

#### 3) 앓수르의 식민지 정책과 사마리아 인

- 앓수르 제국의 식민지 정책 : 한 단일 민족이 민족 정신을 형성하여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민족들을 섞어 인구 혼혈 정책 실행함.
  - ① 북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 앓수르 제국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함.
  - ② 북이스라엘 땅에도 다른 침략당한 나라의 사람들을 들여와 살게 함.

→ 혈통이 섞인 혼혈족 : 사마리아 인 (왕하17:24)

#### 4. 앓수르와 남유다

<p>12번째 아하스 왕</p>	<p>16년간 재위. 친앓수르 정책을 펴 -&gt; 이사야('여호와를 구원하시다'는 뜻)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외교 노선을 바꿀 것을 수없이 설득함 -&gt; 무시하는 아하스 왕 (사7:10~14)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의 동맹군이 남유다에 쳐들어오려고 할 때, 앓수르 왕에게 도움 요청 편지를 보내 앓수르의 북이스라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고 감사의 조공을 하는 아하스 왕. (왕하16:7~9, 대하28:21)          앓수르의 신을 수입하고, 앓수르식 제단을 세우고, 앓수르 신에게 직접 제사를 드리는 아하스 왕. 다메섹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 속히 제단을 만들게 하고 제사를 드림. (왕하 16:10~16)          놋단을 이동하고 안실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을 마음대로 옮김. (왕하16:17~18)</p>
<p>13번째 히스기야 왕</p>	<p>25세에 왕이 됨. 왕이 된 지 6년 만인 31세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됨. 14년째(39세), 앓수르의 왕 산헤립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읍들을 빼앗아 점령함. 언어 천재 랍사게를 보내는 앓수르 산헤립 왕 (사36:1~3)          정말 어려움에 처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히스기야 왕 (사37:5~7)          히스기야의 기도와 기도응답 (사37:15~32)</p>

#### 5. 앓수르 제국의 멸망 (B.C.609)

- 앓수르 군대 18만 5천명의 전멸. (사37:36)
- 앓수르 왕 산헤립의 죽음에 이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앓수르 (왕하19:35~37, 사37:36~38)

Q.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주시는 이유?

→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사37:35, 삼하7:16~17)

다윗 vs 앓수르 왕	
<p>[다윗] 왕위에 올라서도 하나님 나라의 '종'임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섬김</p>	<p>[앓수르 왕]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교만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지배 민족을 통치함</p>

됨. 애굽의 모든 고급 인력과 군사력이 한꺼번에 다 없어진 것.